

워킹미술클럽

9 771227 312009
ISSN 1227-3120
03
ABC 부수인용등록
K-ABC6R



2014 03

www.monthlyart.com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콘텐츠 잡지

Preview

정연두

삼성미술관 PLATEAU 3.13~6.3

낮선 이들의 꿈, 소망과 열정에 주목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정연두의 개인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스펙터클이 주도하는 오늘날의 미술계에서 우리의 일상과 맞닿은 예술로써 현대미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안하고자 기획되었다. 정연두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 세심한 관찰을 늘 작품의 모티프로 삼으며, 일상에서 만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다가서는 매력적인 작업을 전개해 왔다.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6년 만에 선보이는 대규모 개인전으로 국내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던 초기 대표작과 더불어 2점의 신작을 새롭게 선보이며 다양한 사회계층의 일상을 조명한다. 인간의 표면과 내면, 사회와의 관계를 성찰하고 우리사회에 대한 작가의 진심 어린 관심과 공감을 드러낸다.



달의 변주곡

백남준아트센터 2.26~6.29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현대인들이 예술이 표현하는 새로운 시간성을 느낄 수 있는 전시. 이번 전시에서는 7명의 작가의 작품을 통해 현대예술의 다양한 시간성을 체험함으로써 일상을 되돌아보게 한다. 데이빗 클레어바트 작



곽남신

OCI미술관 3.12~4.30

대상의 실루엣을 이용한 '그림자 회화'로 독창적인 작업세계를 펼쳐온 곽남신의 개인전. 인간의 삶의 문제를 화두로 한 '깍뎀기'라는 주제를 통해 인간과 사회에 대한 풍자와 유머를 회화, 드로잉, 판화, 입체설치 등의 다양한 장르로 선보인다.



SeMA 골드 <노바디>

서울시립미술관 3.18~5.11

3인의 재외 한인 여성작가의 눈을 통해 우리 안의 타자가 갖는 의미를 돌이켜 본다. 민영순 윤진미 조숙진이 참여해 사회와 개인 안에서 타자의 의미를 찾는다. 민영순은 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 사회 안의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난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캐나다에 거주하는 윤진미는 국가와 개인, 도시와 재난 사이를 자신의 신체를 통해 탐구한다. 또한 조숙진은 명상적인 작품을 통해 노바디의 힘을 모색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해외 거주 한국 미술가들이 어디에도 속할 수 없고, 어디에나 속하는 노바디로서의 위치를 탐구하며 예술가가 어떻게 세상과, 또 자신과 대면해왔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비서구, 여성이라는 보다 강화된 타자적 조건 속에서 끊임없이 대면해 온 정체성 문제가 3명의 작가들에게 있어 어떻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출되는가를 비교해 볼 수 있다. 민영순 작



황인기

사비나미술관 3.12~4.18

3년만에 개최하는 황인기의 개인전. <내일이면 어제가 될 오늘>이라는 타이틀로 시간의 덧없음과 현대 물질 만능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선보인다. 이번전시는 그동안의 디지털산수화, 레고산수화에서 벗어나 보다 확장된 방식의 설치작업으로 구성된다.



민

코리아나미술관 3.20~5.31

<민, 기억극장전>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전시.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기억하는 방식, 기억이 유지되고 소실되는 과정 등을 극장 형태의 설치 작품으로 가시화하고 미디어가 포함된 6개의 오브제 설치 작품과 3개의 비디오 작업으로 구성한다.

